

202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결과자료집

NEXT STORY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NEXT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NEXT STORY

202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결과자료집

목차

NEXT 사업소개	2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4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1 에어리히 아르바이트 Ehrliche arbeit – freies Kulturbüro 강민형	8
2 필라델피아 미술관 Philadelphia Museum of Art 권대희	12
3 오클랜드 아트 페스티벌 Auckland Arts Festival 김경진	16
4 제르모던 아트센터 Cer Modern Arts Center 김한나	20
5 세르반티노 국제 페스티벌 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 변단비	24

6 요버그 현대미술재단 Joburg Contemporary Art Foundation 이은별	28
7 세르반티노 국제 페스티벌 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 이지예	32
8 트빌리시 국제연극제 Tbilisi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이하영	36
9 큐브-스튜디오 Cube-Studio 최유진	40
10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The Royal Ontario Museum 최혜운	44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지원

1 한국-남아공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세계여성의 날 기념 공연 & 전시 “여신의 언어” 김주원 (2017년 독일 한국문화원 파견)	50
2 서머스쿨: 한국,네덜란드 독립기획자를 위한 배움의 학교 목홍균 (2018년 네덜란드 드아펠 파견)	54
3 바다를 건너는 부엌 : 식구 조혜수 (2020년 부산비엔날레 파견)	58

NEXT

NEXT
EXPERT
TRAINING

NEXT 사업소개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 EXpert Training, NEXT)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기획 인력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카데미, 해외파견, 집중양성과정, 후속 프로젝트 지원 등 신진인력에서 전문인력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NEXT Academy

현장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아카데미와 전문가 강연, 컨퍼런스를 포함한
오프라인 아카데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네트워크, 주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NEXT Placement

국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의 해외파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문화행사 인턴십, 해외 문화 전문기관 펠로우십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견 지원을 통해
현장 종사자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3 국제문화교류 후속 프로젝트 지원 NEXT Follow-up Support

기존 NEXT 사업 참가자의 실질적 국제문화교류 경험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전문인력이 국제무대에서 문화교류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NEXT 아카데미

형태	일시 / 장소	주제	연사
워크숍	2023.12.22. 금 콜라보하우스	2023년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성과공유 / 사업 평가 및 차년도 사업 관련 건의·제안사항 공유	해외파견 실습생 10명 후속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3명
		ESG관점에서 보는 세계 문화예술과 국제교류	
강연	2024.1.19. 금 DDP 디자인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계를 위한 ESG 경영의 이해	김민지 (마인드스페이스 이사, 서울문화재단ESG 경영위원)
		ESG와 공연 창작작 방향의 현장성	어경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미술과 부교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 국제 공연예술시장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시선	장수혜 (문화예술기획,연구기업 Connected A 대표)
컨퍼런스	2024.2.1.목 정동1928 아트센터	국제문화교류 현장에 ESG 적용하기:현황과 과제	
		기조연설: 문화예술분야 ESG와 국제 동향	류승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지속가능한 전시, 예술과 ESG 커뮤니케이션	조주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 Drifting Curriculum 큐레이토리얼 디렉터)
		친환경 축제 실현 전략 : 해외와 국내 사례	계명국 (자라섬페스티벌 감독, 월드뮤직밴드 블랙스트링, 신노이, 반도 프로듀서)
		토론 세계 ESG 흐름을 한국 문화예술계에 도입하는 실질적인 방법, 한계, 도전 과제들	류승완, 조주현, 계명국



워크숍 2023.12.22. <콜라보하우스>



강연 2024.1.19. <DDP 디자인홀>



컨퍼런스 2024.2.1. <정동1928아트센터>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NEXT

에어리히 아르바이트

Ehrliche arbeit - freies Kulturbüro

강민형 · 에어리히 아르바이트(Ehrliche arbeit – freies Kulturbüro)



나는 지금까지 기획자, 프로듀서로 활동해 오면서, 디지털 아트를 비평적으로 읽는 전시, 워크숍을 기획하거나, 광주광역시와 공간, 바림에서 탈중심적 실천과 로컬리티(초지역성)를 바탕으로 한 레지던시, 전시 등을 기획해 왔다. 탈중심적 실천의 본질은 위계질서와 로컬 고립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에는 이 개념과 연결 가능한 식민주의나 인종차별, 성차별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작품 개발과 연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특히 서울을 떠나 다양한 씬의 예술을 경험하고, 그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시스턴트와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면, 기존의 연구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기회라

고 생각했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한국에 소개하면서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고, 현재 여러 기관을 중심으로 ‘융복합’ 혹은 ‘다원’이라는 용어로 기획되는 전시/공연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지원금과 같은 행정적 이유로 다원, 융복합, 예술과 기술 등 수 많은 이름의 기금이 금방 유행처럼 만들어졌다가 곧 사라진다. 애초에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이 나약한 지원금의 제목은 빠르게 그 힘을 잃기도 한다. 지원금의 카테고리가 생기면 그에 맞추려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늘지만, 이것이 항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에어리히 아르바이트
(영문) Ehrliche arbeit – freies Kulturbüro

홈페이지 <http://ehrliche-arbeit.org>

소재지

베를린 Berlin,
Germany

설립연도

2006

파견자 소개

강민형 kang.min2088@gmail.com

큐레이터, 통번역가, 공간 바림의 디렉터 등 시각예술의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 중이며, 다원예술/다학제적 퍼포먼스의 프로듀서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장르를 넘나드는 기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초지역성과 자율성을 디지털 기술의 맥락에서 읽고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예술의 다른 형태를 고민하는 DEGITAL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며, 예술-기술-사회를 연결하는 전시와 워크숍, 연구모임을 선보이는 포킹룸의 기획자로서도 활동 중이다.

상 예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를린의 많은 작품은 시각예술이나 미디어아트, 공연예술과 같은 기존의 장르에 반드시 들어맞지 않는 다양한 다학제적 공연을 선보여 왔으며, 이를 한국에서는 “다원예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한국의 지원금 제도가 낳은 수상한 이름이다. 나는 이러한 기존의 장르에서 벗어난 접근의 공연을 기획하는 기획자, 프로듀서, 연출가들과 함께 일하고 배우며, 이를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에서도 기금의 제목에 얽매이지 않는 기획을 하고 싶었고, 이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찾다가 에어리히 아르바

이트를 접하게 되었다. 그 예시로 베를린의 “쉬쉬팝”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소개된 바 있으며, 에어리히 아르바이트는 쉬쉬팝의 프로덕션을 맡고 있어 더욱 섭외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섭외에 대해 연락하자 에어리히 아르바이트 측에서 더 많은 기획자와 예술가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며, 이 기관에서도 한국의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어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에어리히 아르바이트가 협업하고 있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 기획자를 만났고, 장르적 접근, 주제적 접근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인터뷰나 리뷰를 바탕으로 리서치를 진행했



공연에 대한 리서치를
떠나, 시각예술과도
교차하는 많은 지점을
발견했고,
디지털 기술과 같은
최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연구
할 수 있었다. 기금이나
행정에 묶여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느낌이었다.

고, 이외에도 현재 베를린 및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탈식민주의에도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공연에 대한 리서치를 떠나, 시각예술과도 교차하는 많은 지점을 발견했고, 디지털 기술과 같은 최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연구할 수 있었다. 기금이나 행정에 묶여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느낌이었다. 내용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 주어진 장르적 카테고리를 떠나 여러 매체를 다룰 수 있다는 자유로움은 신선했다. 비록 기술 자체는 한국의 예술 씬이 습득이 빠르고 누구든 표현 도구로써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느낌이었으나,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는 베를린에서 더욱 눈에 띄었다. 표면적으로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포섭하는지 보다는 서서히 침투하는 기술에 대한 태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점에 대해 베를린의 동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고, 추후에 전시나 공연 기획으로 만들어 서로의 문화권에서 소개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던 교류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한국에서 해오던 기획 방식도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3 공연 포스터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강민형



4 프로덕션 팀 사진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강민형

필라델피아미술관에서의 근무를 마무리하며

권대희 · 필라델피아 미술관 (Philadelphia Museum of Art)



To achieve this, I melt soap into large blocks.

1 제작 참여 영상 1 : 전시 마케팅 비디오
*출처: Philadelphia Museum of Art 공식 유튜브

1876년에 설립된 필라델피아미술관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동서양 미술품 25만여 점을 소장 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관 중 하나이다. 그간 2009년 예술의 전당의 《모네에서 피카소까지》, 2013년 국립박물관의 《미국미술 300년》,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마르셀 뒤샹》 전시를 통하여 한국의 관람객에게 소장품을 소개하였던 이력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미술관 최초의 대규모 한국 미술 특별전인 《조선미술대전》을 통해 미국 관람객에게 우리 문화를 알린 바 있다.

내가 참여한 《The Shape of Time: Korean Art after 1989》는 2009년 LACMA에서 열린 《Your Bright Future》

이후로 미국에서 10여년 만에 열리는 대형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이다. 나는 기존에 Korea Foundation을 통해 연구원으로 전시 기획 단계에 투입된 이후, 기존의 비자가 만료되어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업무를 지속하게 되었다.

나는 큐레토리얼 팀에 소속되어 공동 큐레이터 선생님들의 전시기획 보조 및 미술관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관련 기획 및 제작 과정에 폭넓게 참여했다. 전시장에서 관람객에게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 전시장 내 배포 핸드아웃, 작품 설명 레이블, 오디오 가이드,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마케팅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영문) Philadelphia Museum of Art

홈페이지 <https://philamuseum.org>

소재지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United States

설립연도

1876

파견자 소개

권대희 dh_arts@naver.com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동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예술의 일상화, 일상의 예술화를 추구하며 경계 없이 전시 및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비디오, 도록 내 수록된 한국의 미술 및 역사에 대한 연보 등을 제작하는 교육, 마케팅, 출판 등 다양한 관객 접점 부서와 소통 및 협업하며 업무를 진행하며, 전시 기획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방문 이전부터 이어지는 전시 경험 전반을 위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그동안 익숙했던 한국인에게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권의 관람객에게 어쩌면 전혀 배경지식이 없을 우리 문화를 소개할 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배움의 기회였다.

전시기획 및 실행 이외에도 미국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받았다.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미술관의 자체적인 Fellowship 프로그램이다. 미국 전역 각지에서 온 Fellow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여 동년배의 미국 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였다. 뿐만아니라 지역 내 활동 중인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과 월 2회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중 필라델피아 전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경험이다. Mural arts Philadelphia, Fabric Workshop 등 필라델피아 전역의 예술 기관과 협업 가능



this skin supports and protects me.

2 제작 참여 영상 2 : 아티스트 소개영상
*출처: Philadelphia Museum of Art 공식 유튜브

다양한 문화권의
관람객에게
어쩌면 전혀 배경지식이
없을 우리 문화를
소개할 때에는 어떻게
접근 해야할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배움의 기회였다.



성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미팅을 진행하고, 혹은 실제로 협업을 진행하며 미술관 이외에도 타 미국 기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의 전시기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1) 한국의 급속 및 과밀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복잡성과 그로 인해 고유한 특징 2) 해소되지 않는 북한과의 정치적 긴장감 및 이 부분이 한국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3) 우리의 전통을 인식하는 방식 및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 등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심사였다. 감사하게도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 또한 전시, 갈등, 이동, 순응, 페미니즘의 부흥이라는 소주제를 통하여 기획이 진행되어 제가 갖고 있던 관심사로 기획 과정에 참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전시 오프닝날 전시를 관람하시는 분들의 진지한 눈빛과 그들과 나눈 즐거운 대화들을 기억한다. 전시를 준비하며 힘들었던 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내게 많은 배움과 즐거운 기억을 남겨준 필라델피아미술관에서의 시간을 가능하게 해주신 KOFICE 및 관계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 제작 참여 영상 3: 아티스트 소개영상
* 출처: Philadelphia Museum of Art 공식 유튜브

*NAU MAI, HAERE MAI 잔잔한 섬나라에서의 다채로운 4개월의 시간

김경진 · 오클랜드 아트 페스티벌(Auckland Arts Festival)



1 페스티벌 사무국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경진

8월의 첫째 날, 분명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비행기에 올랐는데 긴 비행 끝에 기체 밖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훅 와닿는 찬 공기에 드디어 실감할 수 있었다. 비로소 적도를 지나 계절마저 반대인 완전히 다른 세상, 뉴질랜드에 도착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일찍이 호주와 영국에서 생활을 경험해 본 바 일상 전반에 관해선 내적 친밀감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나라의 인지도에 비해 한국과 예술 방면의 교류가 매우 드문 뉴질랜드의 문화예술 산업이 궁금했다. 그러던 차에 KOFICE 파견 프로그램으로는 아마도 최초로 ‘오클랜드 아트 페스티벌(Auckland Arts Festival)’이 파견 대상 기관으로 뜨게 되었고, 여러 과정 끝에 선정이 되어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페스티벌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그 산업의 일부분을 알아갈 수 있었다.

오클랜드 아트 페스티벌(이하 AAF)이 처음 개최되었던 것은 1948년도로, 국제적 규모의 공연예술 축제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통틀어 최초였다고 한다. 첫 개최 이후 1982년까지 이어지다 잠시 명맥이 끊겼었지만 2000년에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다시금 추진하여 2003년에 재탄생했고,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었다가 2013년 이후로는 매년 3~4월, 남반구에서는 가을이 막 시작되는 즈음에 열리는 오클랜드의 대표 예술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축제 프로그램은 연극, 무용, 음악, 혹은 그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복합장르의 공연들, 서커스 및 시민 공연 등 그 장르의 가짓수를 헤아릴 수 없다. 곧 개최될 2024년도 페스티벌은 총합 200회 이상의 다양한 공연 및 퍼포먼스가 선보여질 예정으로, 각 프로그램이 장르 다양성의 면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오클랜드 아트 페스티벌
(영문) Auckland Arts Festival

홈페이지 www.aaf.co.nz

소재지

오클랜드 Auckland,
New Zealand

설립연도

2003

파견자 소개

김경진 thestage_22@naver.com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던 중 처음으로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을 관람한 후 공연예술에 매료되어 ‘12년도부터 극단, 기획사를 거쳐오며 기획 프로듀서 및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각기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창작적 씨앗과 영감을 교류하며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예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늘 꿈꾸고 있다.

에서 균형있게 배치되어 비단 예술의 코어 수요층만이 아닌 일반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언뜻 이웃 국가인 호주와 사는 모양새가 비슷해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축제의 공식 홍보물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요소 곳곳에서 마오리 부족어(Te Reo Maori)가 흔히 발견된다는 점이다. 마오리어로 아오테아로아(Aotearoa)라 불리는 뉴질랜드는 영국의 지배 훨씬 이전부터 그 땅에 살아온 원주민인 마오리인의 전통문화와 그 민족적 유산을 매우 존중하며, 이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나라이다.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마오리의 특색을 함께 담으려는 노력이 드러난다. 마오리 프로그램

을 총괄 기획하는 마오리 예술감독의 검수 하에, 모든 공식 홍보물과 안내 사항에는 영어와 비등한 분량으로 마오리어가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축제의 중심부인 아오테아 광장에서 시민과 다 함께 마오리어 노래를 부르는 와이아타 마이(Waiata Mai)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3주가량의 축제기간 중 매주 초에는 그 주에 도착하는 축제 공연팀들을 위한 마오리식 환영회를 연다. 마오리 외에도 인근의 태평양 섬나라인 사모아나 피지, 통가 등으로부터 이주한 이주민들의 문화 역시 같은 파시피카(Pacifika)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전통예술을 페스티벌 전반에 녹여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 영국 연방국가로서의 유럽 스타일의 예술과 태평양 섬나라들의 신비로운 전통예술이 각각의



2 프로그램 기획회의 모습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경진

특색을 선명히 지닌 채 공존하는 것이 뉴질랜드의 문화예술 생태계이고, 이를 중심으로 리드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AAF이다.

AAF 사무국은 크게 프로그램 기획, 기술 지원, 마케팅 및 홍보, 협력 및 후원 관리, 티켓 관리, 특수 관객 및 교육 프로그램 관리, 사무국 운영지원 정도로 업무 분야와 담당자가 나뉘어 있고, 그 중에서 나는 프로그램 기획팀의 인턴으로 배정이 되었다. 파견 첫날이었던 8월 초에는 이미 그 다음 년도인 '24년도 프로그램의 70% 가량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렇게 섭외된 여러 공연 단체와 세부 일정 및 초청 조건 등을 협의하는 단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나 역시 현역 활동 중인 기획자로서 초반에는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한국 단체를 여럿 추천하고 싶은 의욕이 앞섰는데, 다음 페스티벌 라인업 후보작들은 이미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추천작은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처음엔 다소 허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논의 중인 작품들과 그 외 논의된 바 있지만 추진이 무산된 수많은 후보작들을 보다보니, 정말 세상에는 내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문화권의 작품들, 가령 아프리카 베닌 출신 밴드의 공연이나 벨기에의 댄스드라마, 한국과 같은 아시아 문화

권이면서도 좀처럼 국내 무대에서 접해본 적이 없는 대만의 타악 공연팀 등. 서커스나 카바레 등의 장르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점 또한 색다른 매력이다. 어느덧 페스티벌의 시그니처로 자리잡은 아오테아 광장의 스피글텐트(SPIEGELTENT)는 약 400~500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축제기간만 운영되는 일종의 팝업 공연장인데, 그 안에서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며 관람하는 서커스와 라이브 카바레 공연은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신나게 해소하는 데에 제격이라 한다.

장애 예술인 및 관객의 편의를 위한 전략과 방안도 매우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지점이었다. 사무국에는 Access&Inclusion 담당자가 별도로 상주하여 각 장애인 지원단체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장애인 관객 또한 원활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Audio description),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 해설을 적극 제공하며, 기타 조건상 본 공연을 온전히 집중하여 관람하기 어려운 관객은 사전 계획된 터치 투어(Touch tour)를 통해 백스테이지에서 미리 약기나 소품을 접하고 별도의 해설을 듣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장애 예술단체의 공연 또한 일정 비중 이상으로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다른 공연과 동일한 조건으로 티켓이 판매되고 공연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장애인에



3 프로그램 기획회의 모습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경진

술제라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한 자리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좋은 시도의 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반기 파견이라 3월에 열리는 축제 기간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기획단계에 파견된 덕분에 실질적인 업무가 생생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실무자로서 누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축제를 구성하는 것들을 하나씩 모으고, 각 공연단체와 협의사항을 조율하며 계약서를 한 건씩 써가고, 최종 라인업이 정해진 후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마케팅 전략 및 언론홍보에 관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나누고, 첫 티켓오픈 후 판매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겪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인턴이라는 직책상 중요도가 높은 일이나 크게 역동적인 역할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덕에 과도한 부담 없이 전반적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 접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소화하며 새롭게 영감을 떠올릴 만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점 또한 다행이었다.

모처럼 파견된 한국의 기획인력인만큼 페스티벌에 한국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다. 이러한 나의 고민과 노력을 알아봐준 사무국 동료들은 기꺼이 나의 여러가지 크고 작은 제안과 시도를 지지해주었고,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함께 해보라며 먼저 손을 내밀어주었다. 협찬 담당자와 함께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국 교민사회 대상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고, 뉴질랜드 거주중인 개인 인플루언서들에 접촉하여 협업을 꾀해 보기도 하고, 한국의 방송사와 접촉하여 에피소드 협찬에 관해 논의를 해보기도 하는 등, 오克兰드 최대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업고 재미있는 시도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었다.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축제 홍보영상에 직접 출연하여 한국어로 공연 소개를 한 것, 그리고 홍보물에 특별 삽입된 공연 소개글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 외에는 파견 종료시점까지 이렇다 할 드라마틱한 일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팀 동료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었듯 서로가 떠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보고 기존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다른 여러 방향으로의 소통을 시도하는 일들 자체가 나로서도 그리고 축제팀의

로서도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덤으로, 다른 나라 조직의 소속이 되어 일의 진행을 고민하고 한국 기관 및 단체를 대하다 보니 한국의 업무 문화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 점이 흥미로웠다.

쏟아질듯 흘러간 오克兰드에서의 4개월은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깊은 흔적과 강렬한 전환점을 남긴 시간이었다. 목가적인 자연 속에서 단조로운 일상만 흐르는 듯 보이지만, 마치 호기심 많고 개구진 어느 영화의 호빗들처럼 다양한 색채의 예술을 가득 모아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신비한 나라 뉴질랜드. 나의 여정이 한국과 뉴질랜드의 우정에 또 하나의 움을 틔운 시간으로 소중히 자라나길 바라며, 앞으로 두 문화권의 활발한 예술 교류를 지원하면서 그 안에서 이 값진 경험을 한 기획자로서의 내가 어떤 사건을 일으킬 수 있을 지 흥미로운 꿈을 꾀본다.

* NAU MAI, HAERE MAI: '환영합니다'라는 의미의 마오리 언어



4 사무실 이전을 기념하는 마오리식 개업식과 축제 시그니처 큐브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경진

전시 갤러리를 넘어서, 복합문화공간에서의 4개월

김한나 · 제르모던 아트센터(Cer Modern Arts Center)



1 K-maestro 산조 공연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한나

융합, 복합 예술 기획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알게 되었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니 전시를 포함한 공연과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시각예술 전시에만 국한되었던 경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 축제를 진행하는 종합예술기관 세 군데를 지망하였고, 지정된 기관에서의 면접을 거쳐 합격해 동서양을 잇는 나라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다.

제르모던 아트센터는 기차역을 보수하여 2010년 미술관으로 개관하여 미학적으로 뛰어나고 건축학적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전시와 공연을 통해 수도 앙카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설치와 진행을 지원했던 전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탈리아 돌로미티의 현대미술 작가 전시《Dove Una Volta C'era Il Mare(Once upon a time where the sea was)》다. 10인의 회화와 설치, 조각, 사진 작품에 대해 큐레이터 Lisa Trockner는 바다가 사라지면 새로운 지평선이 나타나듯이 유형적인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여 작가 Hueber Kostener는 클라이머이자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등산 로프를 소재로 한 작업을 이어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볼더링장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돌과 로프를 함께 설치한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제작과 운영에 참여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솔로 댄스 페스티벌>이다. 운영팀에 소속되어 해외 아티스트와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프로그램과 리허설을 지원했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각국 대사관의 후원을 통해 13개국의 현대무용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였다. 올해 축제 테마는 ‘몰입’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제르모던 아트센터
(영문) Cer Modern Arts Center

소재지

앙카라 Ankara,
Türkiye

설립연도

2010

홈페이지 <https://www.solodans.com>

파견자 소개

김한나 hannakim7299@gmail.com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 후 미술 갤러리에서 전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2023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튀르키예에서 세계 축제와 전시 업무를 지원하였다.

향후 문화인류학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류의 공통 언어를 창작하는 예술 기획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K-maestro 전시 포스터

★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한나

이었다. 깊은 정신적 집중을 위해 일반인부터 아마추어 댄서까지 참여 가능한 단계별 워크숍이 마련되었다. ‘라이브 드로잉’과 ‘춤의 사회학’ 강연은 앙카라에서 공부하는 예술대학교 연사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다. 참여한 아티스트들을 위한 현지 투어 프로그램에서는 앙카라 캐슬과 고고학 박물관을 방문했다. 오후 8시에 해가 완전히 저물고 무대 조명이 켜지면서 메인 프로그램인 댄서들의 솔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아티스트들은 수준 높은 안무와 음악과 조명, 소품을 통한 연출로 내재된 연기를 통해 각자의 스토리텔링을 전했다. 축제 둘째 날 저녁 디지털 전시관에서 진행된 애프터파티에서는 미디어 디자

이너들이 준비한 영상 작업들을 선보여 아티스트와 관객, 관계자 모두가 하나 되어 몰입의 경험을 공유했다. 마지막 날 공연이 끝나고 행사를 만든 동료들과 다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는 감동과 보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참가자들은 진심으로 환영해 주어서 따뜻한 감동을 느꼈다는 감사의 인사와 소감을 남겼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통할 수 있고, 무용으로 느껴지는 유대감을 나눈 경험은 다양성을 기리는 예술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연대의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다.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과
열정을 통해 이후
문화 다양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여 국제무대
에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
가고 싶다.



3 Solo dance festival 포스터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한나

9월 한 달 동안 앙카라는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국제 문화 축제>로 도시 전체가 활기찬 분위기였다. 이 행사는 ‘튀르키예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1923년 10월 29일 앙카라에서 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한다. 55개국의 대사관이 참여하여 크고 작은 콘서트, 전시, 무용, 음악회, 상영회 등을 통해 세계의 아티스트를 만난다. 한국의 아티스트로는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 트리오와 기타리스트 정주영 님이 함께한 재즈 무대, 라이브 뮤직 클럽 뮤지칸(Kulup Mujgan)에서 밴드 코토바의 공연이 있었다.

제르모던 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는 세계 문화의 날 행사가 진행되어 예술 공연과 문화 체험을 통해 각국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에 대한 노력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한국의 문화부스에는 다양한 한식을 구경할 수 있는 한식 모형이 전시되었고,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한복 포토존이 준비되었다. 행사장에 마련된 무대에는 한국의 전통 부채춤 공연과 대사관저 요리사가 진행하는 김밥 만들기 시연회가 준비되었다. ‘함께하는 것이 항상 더 좋다’라는 행사의 슬로건에 부합하듯 한국의 문화 부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다시 한번 K-컬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국제 문화 축제>의 마지막 주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국립국악원의 <K-마에스트로> 전시가 진행되어 강신재 예술감독님과 참여 작가님들이 한국에서 방문하셨다. 최민정 전통매듭 작가 및 현대 민화 작가 10인의 작품이 설치되었고, 국경일 행사로 방문한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판소리와 산조 공연이 진행되었다. 전시 현장에는 하루 200명 이상이 방문하여 ‘경험적 공예’를 체험했다. 현지 관람객들의 큰 관심 속에 책가도와 민화의 상징적 요소 등을 소개하는 작품 해설 도슨트를 진행했다. 문자도를 소개하는 도중에 ”유교의 여덟 가지 가치는 한국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양쪽 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특유의 환대와 관용의 문화로 인해 나의 부족한 언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과 열정을 통해 이후 문화 다양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여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제르 모던 기관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4 Solo dance festival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한나



5 Solo dance festival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김한나

처음에는 미처 몰랐지, 5개월이 이렇게나 짧게 느껴질 줄은

변단비 · 세르반티노 국제 페스티벌(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



1 기획자들의 만남 단체사진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변단비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 공부하던 스페인어를 현지에서 익히겠다며 멕시코로 떠난 2개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이미 멕시코와 사랑에 빠져버린 나는 상사병 아닌 상사병을 앓고 있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쉬워만 했던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줬는지, 한국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파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멕시코로 다시 돌아갈 방법은 바로 이거다! 싶었다. 선정되더라도 파견 기간은 단 5개월뿐이었지만, 일단 지원서를 넣고 보자는 마음이었다.

무려 한 달간의 서류 합격과 두 번의 면접을 지나 최종선정 안내를 받자마자, 주변 사람들은 내가 다시 멕시코로 간다는 사실에 슬퍼했고, 나는 기뻐했다. 게다가 축제 사무국에서 일할 수 있다니. 문화예술기획 분야에서 일한 지 몇 년째 되던 나에게, 높은 직급의 선배님들이 가는 해외 축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파견이었지만) 얼마나 큰 설렘이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4월 초 합격 소식을 받고,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5일 멕시코행 비행기를 다시 탔다. 작년 연말 멕시코행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올해 한국에 단 3개월만 머무르게 될 줄 미처 몰랐다.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세르반티노 국제 페스티벌
(영문) 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

소재지

멕시코시티 Mexico City,
Mexico

설립연도

1972

홈페이지 <https://festivalcervantino.gob.mx>

파견자 소개

변단비 bdb0425@naver.com

2017년부터 문화예술분야에서 축제, 전시, 공연 등을 만드는 문화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스페인어권 문화에 관심이 많아 2022년 연말 멕시코로 떠나 2개월간 어학연수를 했고,

2023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을 통해 멕시코 세르반티노 축제 사무국에서 축제 지원 업무를 맡았다. 앞으로 중남미와 한국 문화를 잇는 문화예술사업에 종사할 예정이다.

나는 Circuito 부서에 배정되었다. 각 주별로 혹은 멕시코 전역을 돌며 공연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이미 진행되고 있던 Raíz México 라는 뿌리음악축제가 전국에서 진행 중이었다. 멕시코에는 31개의 주와 멕시코시티로 구성되어있고, Raíz México는 각 주에서 몇 팀의 아티스트가 투어공연을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있었다.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달에 우리는 현장을 보기 위해 치아파스(Chiapas)와 케레타로(Querétaro)로 출장을 갔다. 멕시코시티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의 음악 축제를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멕시코시티와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진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멕시코시

티에서 진행되는 Raíz México 공연들도 사진과 영상기록 지원을 나갔다. 이 사업 덕분에 나는 적어도 멕시코시티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형태의 공연장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Raíz México 사업과 관련하여 나는 아티스트들의 약 2~3장 정도의 결과보고서 오류 검토, 공연 사진과 영상 업로드 등의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세르반티노 사업 외에도 나는 멕시코 문화부(Secretaría de La Cultura)에서 주최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정책회의(Mondiacult) 살롱 개막



2 세르반티노, 아르코 미팅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변단비

세르반티노에서의 업무
경험은 앞으로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식이었다. 각국의 주멕시코 외교관들과 멕시코 문화부, 세르반티노, 유네스코 등 많은 외교 및 문화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관련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끝나고 살롱을 둘러본 후, 약간의 식사와 술을 곁들인 작은 파티도 있었다. 멕시코 행사 문화와 더불어 해외에서 세계의 중요한 문화정책의 중심이 되는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경험이었다.

세르반티노 축제 기간에는 9일간의 과나후아토 출장이 잡혔다. 세르반티노 축제는 과나후아토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고, 초청된 다양한 국가의 아티스트들이 멕시코의 다른 도시에서도 투어 공연(Circuito Cervantino)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는 세르반티노 축제 기간에 9일은 과나후아토, 나머지 기간은 멕시코시티에서 업무지원을 하게 되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주로 아직 끝나지 않은 Raíz México 업무와 함께 Circuito Cervantino 멕시코시티 공연 사진과 영상기록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다. 1과나후아토 출장 기간에는 기획자들의 만남(Encuentro de Programadores)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멕시코, 미국, 에콰도르, 한국 4개국의 9명의 축제 및 문화 기획자들이 만나 세르반티노 국제 축제에 대해 깊게 알아보고, 멕시코 아티스트들과의 만남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약 3박 4일간 진행된 이 프로그램 덕분에 나 또한 부족했던 세르반티노 축제에 대한 지식, 정보들을 더 채울 수 있었다.

과나후아토 출장 종료 후, 멕시코시티로 돌아와 Circuito Cervantino 업무지원을 이어갔다. 그리고 곧 파견이 종료되었다. 처음 NEXT 해외 파견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5개월의 파견기간이 짧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파견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니 5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다. 세르반티노에서의 업무 경험은 앞으로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 또한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꽤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멕시코 그리고 세르반티노에서의 5개월은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 좋은 지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3 Raíz México 공연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변단비



4 기획자의 만남-소노라주 문화부 미팅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변단비

다르게 보기.

이은별 · 요버그 현대미술재단 (Joburg Contemporary Art Foundation)



1 전시 OTHERSCAPES 설치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이은별

01.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따듯한 햇살이 비치는 고요한 평화, 살을 에워오는 추위의 적막과 고독, 세련된 상점들의 즐거운 활기, 위태로운 거리의 불안한 치안. 이 모든 상반된 것들은 지난 시간 동안 남아프리카에서 있으며 내가 겪은 모든 것들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으로 하루 최소 4 시간에서 최대 11시간 이상 정전이 되는 일상을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불안정한 치안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 또한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추위에 떨지 않는 삶, 깨끗한 물을 언제나 쓸 수 있는 삶, 어디든 자유롭게 걸어 다

니는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어리석게도 나는 이곳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빛이 모두 사라진 싸늘한 방 안에서 다시 전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때면 종종 먼 곳에서 총성 소리가 들렸고, 그때마다 나는 ‘예술’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싸늘해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회의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전시 ‘OTHERSCAPES’ 통해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나누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예술’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술’은 사람들을 연결 짓고 이야기를 전달하며 말을 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요버그 현대미술재단
(영문) Joburg Contemporary Art Foundation (JCAF)

소재지

요하네스버그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설립연도

2020

홈페이지 <https://jcaf.org.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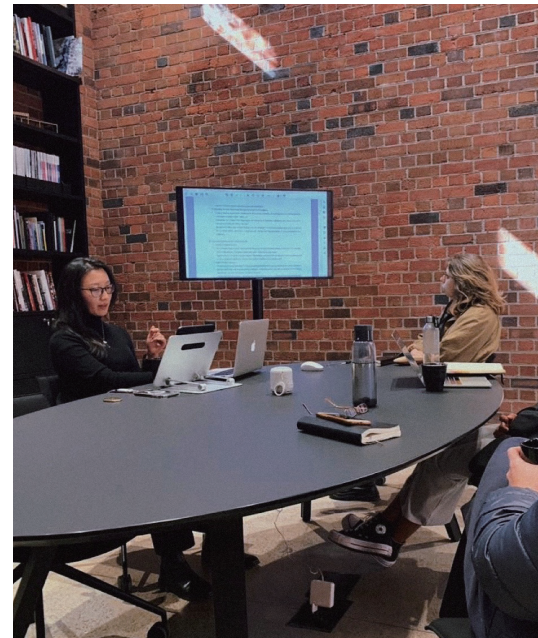
파견자 소개

이은별 47.byeol@gmail.com

미술관이 건축, 전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다. 이것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예술적 경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큐레이터, 코디네이터, 전시 컨설턴트, 예술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예술 대학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Global Arts and Cultures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02. 한 국가는 어떻게 트라우마의 유산으로부터 회복할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오랜 기간 법으로 흑인을 차별하는 ‘아파르트헤이트’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30년 전 드디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종료되고, 민주주의로 전환되며,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유토피아를 꿈꾸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의 삶은 더 위태로워졌고, 더 양극화되었다. 공공서비스의 부족, 부패, 정전 등 위험한 일상에 내몰리며 국가에 대한 소속감은 점차 약해지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낯선 것은 익숙하게, 이상한 것은 정상적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 JCAF 전시 및 프로그램 연구 발표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이은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버그 현대미술재단의 전시 ‘OTHERSCAPES’는 남아프리카의 예술가 네 명의 작품을 통해 유토피아와 실패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며 현대 남아프리카의 복잡한 상황을 조망한다. Siemon Allen의 ‘Stamps V’는 1910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 동안 발행된 남아프리카 우표를 통해 한 국가가 어떻게 부패와 사건을 감추며 자신을 대표해 왔는지 변화하는 국가 정체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Sethembile Msezane의 ‘Avuleka Amazulu’는 아파르트헤이트와 식민지 유산의 영향으로 여전히 무거운 트라우마의 영혼이 어떻게 반복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봄으로써, Nicholas Hlobo의 ‘Ndize’는 어린이 놀이인 ‘undize’를 활용하여 현 사회가 감추고 있는 미로 같은 현실을 투영한다. 또한 Wim Botha의 ‘Solipsis I’는 역사 속의 전투와 갈등 장면을 가볍고 취약한 조각으로 묘사한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한 국가는 어떻게 트라우마의 유산으로부터 회복할까?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질문에 ‘OTHERSCAPES’는 우리가 서 있는 장소, 시야 안에서의 풍경을 통해 남아프리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진행 중이지만 결코 완성되지 않는 새로운 나라에서 누군가는 과거를 집어삼킨 유토피아를, 누군가는 여전히 위태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NEXT 프로그램은 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03.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유산으로 인한 글로벌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 회복하기.

2020년 글로벌 사우스의 탈식민주의 미술관을 목표로 설립된 JCAF은 학술 예술 연구 기관이자 박물관 플랫폼 그리고 기술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 및 학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주제를 3년간 세 가지 전시로 선보이는 독특한 전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School of the south lecture series”를 진행하며, 글로벌 남부의 지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NEXT 프로그램 지원을 준비하며 JCAF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나는 꼭 JCAF에 가서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글로벌 예술 전문가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나에게 JCAF에서의 경험은 나의 좁은 지식과 시야를 넓혀줄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탈식민주의 미술관에 대한 많은 담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Museum’이 제국주의와 함께 탄생했으며, 근대 ‘Museum’의 포맷조차 제국주의의 산물임을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다. JCAF은 그들의 첫 시작을 탈식민주의 미술관의 미래를 성찰하며 ‘Museum’의 포맷을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아르준 아파두라이의 연구 “The Museum, the colony, and the Planet: Territories of the Imperial Imagination”와 함께 그들의 첫 시작을 알렸고, 아파두라이의 연구를 기반으로 3년간 진행할 자신들의 첫 전시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식민지의 유물을 본국으로 가져오 고자 하였던 제국주의의 열망으로 시작된 아카이브 형식의 박물관 관행 또한 탈피하였다.

JCAF의 연구는 언제나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유산으로 인한 글로벌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을 회복하고, 빼앗긴 주체성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예술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대와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JCAF에서의 전시 연구 하던 경험은 내가 뮤지엄과 전시 포맷을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여전히 식민지의 유산이 곳곳에 남아있는 현재에 ‘탈식민지 미술관’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술 연구자이자 실무자로서 나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파견이 종료된 지금에서도 나는 ‘Global Arts and Cultures’의 석사 과정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탈식민지 미술관과 전시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04. “Your research is thorough and professional.”

‘일하는 삶이 이렇게나 좋만하고, 행복할 수 있다니.’ 비록 살아가는 환경은 어려웠을지라도 매일 같이 배움의 기쁨과 설렘을 느끼며 나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정말로 행복했다. 전시기획에서부터 구상 그리고 실현까지 모든 과정에서 조금의 디테일도 놓이지 않는 Clive를 보며 나는 매일 손이 바빴다. 전시기획 과정에서 그가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지, 미묘한 차이가 만들어 내는 전시 내러티브의 균열을 어떻게 파악하여 완결성과 응집도를 높이는지 등을 모두 기록하며 그의 시선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전시 연출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Jeannine을 따라 전시 설치에 함께하며 전시 디스플레이와 설치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기반으로 예술적 활동을 실천하는 Barbara와 Kay Leigh를 통해 예술 종사자로서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나에게 있어 JCAF에서 일하던 시간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였다.

이 귀중한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싶어 JCAF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때면 나는 언제나 Clive에게 업무를 제안하였고, 그럴 때마다 그는 적극적으로 배울 기

회를 주었다. 매달 월 단위로 각기 다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완료 후에는 모든 팀원에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피드백을 공유받는 과정을 통해 나는 예술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Clive에게서 “Your research is thorough and professional.”이라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을 벗어나 처음으로 국제 업무 환경에 적응하며,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노력하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05. NEXT 프로그램, 그 이후.

NEXT 프로그램 이후로 내 삶은 정말 너무나도 달라졌다. 세상과 예술을 바라보고 이해하던 좁은 시야가 넓어졌으며, 넓어진 시야만큼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술 종사자로서의 나의 역할과 책임 또한 새롭게 보고 있다. 그리고 파견 기간이 끝난 지금 나는 ‘Global Arts and Cultures’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며 또 다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단연 NEXT 프로그램은 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더 넓은 세상과 기회를 꿈꾸게 해준 NEXT 프로그램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 파견 마지막 날 촬영한 JCAF 팀 사진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이은별

뜻밖의 선물 같았던 나라, 멕시코

이지예 · 세르반티노 국제 페스티벌(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



1 Cervantino 폐막공연 현장 - Auruto O'Farrill Orchestra con Conga Patria Son Jarocho Collective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이지예

멕시코로의 파견, 나는 스페인어를 못하는데?

축제 사무국, 아트센터 그리고 일반 공연 기획 회사에서 일을 하며 공연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권태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고 내가 진정으로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건지 하고 싶은 일이 맞는지 스스로 반문하며 시간을 보내던 차에 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연과 관련된 일을 해보면 내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 공고를 접하였을 때 무기력하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프로그램 합격을 위해 밤낮으로 참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멕시코로의 파견이 확정되었던 날, 기대했던 나라는 아니었지만 바라고 바라던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함과 설렘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에게 큰 걱정이 밀려왔다. 나는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파견 후, 첫 1~2달은 나에게 고통의 달이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스페인어로 의사소통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나와 함께 파견 나온 베띠에게 많은 것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일을 배우고 이곳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멕시코에 온 것이었는데 함께 파견 나온 베띠와 현지 직원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았다. 이러려고 멕시코에 온 게 아닌데 하며 자괴감에 빠져 슬럼프를 겪으며 멕시코 생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었다.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세르반티노 국제 페스티벌
(영문) 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

소재지

멕시코시티 Mexico City,
Mexico

설립연도

1972

홈페이지 <https://festivalcervantino.gob.mx>

파견자 소개

이지예 222apple222@naver.com

기획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이 많다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어찌 되었든 멕시코에서의 생활은 계속된다.

나는 Circuito라는 부서에서 배정받아 일을 했다.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였다. 우리 부서는 세르반티노 축제뿐만 아니라 Ráiz México(직역: 뿌리 음악 축제)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Ráiz México는 멕시코를 7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있는 도시를 순환하며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Centro 지역에 있는 Querétaro(케레타로)와 Sur 지역에 있는 Chiapas(치아파스)로 출장을 갔었다. 멕시코는 크기가 큰 만큼 도시의 분위기가 다르고 그 지역에만 있는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Querétaro는 스페인 치하에서 오랫동안 지배받은 도시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가 깊은 도시이다. 도시 곳곳에서 유럽식 건물을 볼 수 있었다. 센트로에는 유네스코로 지정되어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도시였다. Chiapas는 멕시코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는 만큼 더운 날씨를 자랑했다. 열대우림과 정글 지대도 존재하는 도시에 오니 새삼 멕시코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Más Allá de Guanajuato 프로그램을 한국에 홍보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홍보할 방법에 대해 모색했었다. Más Allá de Guanajuato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2 Cervantino 공연 현장 - Calomcho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이지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개월의 시간은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더 확고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프로젝트로, 신청자들에게 원하는 세르반티노 공연의 영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 관람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예술고등학교, 대학 동아리, 학부 등에 이메일을 보내고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같은 예술관련 홈페이지에 홍보글을 게시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한 팀만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르반티노 공연 영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세르반티노 국제 축제는 올해 51회를 맞이한 유서 깊은 종합 예술 축제이다. 한 장르에 특화된 것이 아닌 세르반티노 국제 축제에서는 전시, 음악, 춤, 연극 그리고 영화까지 모든 장르의 예술을 축제 기간 동안 즐길 수 있다. 그런 만큼 축제 기간도 긴 편이다. 약 2주~3주 동안 진행되는 세르반티노 국제 축제는 매년 주빈국과 주빈이 되는 주를 선정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주의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주빈국은 미국이고 주빈이 된 주는 Sonora(소노라)였다.

이렇게 큰 축제에 내가 함께하게 된다니 많은 걸 보고 배울 기회라 여겨 가슴이 설렘. 하지만 아쉽게도 축제 기간동안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 부서는 세르반티노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부서라 모든 인원이 과나후아토에 가지 않고 멕시코 시티 사무국에 남아 일을 했다. 나와 함께 파견 나온 베티와 일주일씩 과나후아토에 파견을 가게 되었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시티에 있는 공연장을 다니며 사진, 영상 아카이브 및 인원 체크를 진행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중국인 아티스트들의 통역을 지원했던 것이다. 공연 현장 외 호텔 체크인, 공연장 이동과 같은 생활에 관련된 부분의 통역을 도와드렸다. 시티 사무국 내에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나 밖에 없어서 내가 하게 되었다. 전문 통역사 같은 유창한 중국어는 아니었지만, 나의 통역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중국에 돌아가실 때 나를 찾으셨다 해서 뿌듯했다. 과나후아토에서는 공연 현장을 다니며 공연을 보는 게 주 업무였다. 사무실에서 Más Allá de Guanajuato 프로그램 검수를 하다가 공연 시간이 되면 공연을 보러 가는 일정이 계속되었다. 내가 과나후아토에 갔을 때 멕시코에 큰 허리케인이 왔는데 그 영향으로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감기에 걸려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그렇지만 Casa prensa에서 진행된 인터뷰, Casa Sonora 관람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와 멕시코의 우수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외에도 Ximena Corcuera Brand 2022 전시 오프닝, Musical Marvels of Saudi Arabia 공연 관람,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정책회의(Mondiacult) 개막식 참여 등 한국에서는 하기 힘든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힘든 만큼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하게 한 멕시코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정이 든 멕시코, 떠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떠나기 싫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사실 나에게겐 생소했던 멕시코지만 이번 파견을 통해 멕시코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아즈텍, 마야 문명부터 각 지방의 특색있는 춤 그리고 선인장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처럼 알면 알수록 다양한 매력이 있는 멕시코의 문화. 위험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그간의 내가 부끄러워졌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개월의 시간은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공연에 권태감을 느꼈던 나는 공연에 더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 문화를 접하며 나의 세계를 넓혀가고 싶다.

Muchas Gracias! Hasta pronto!
(정말 고마워, 곧 만나자!)



디디 마들로바, 트빌리시

이하영 · 트빌리시 국제연극제(TBILISI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1 조지아 쇼케이스 홍보 마켓 현장 사진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이하영

어떤 것을 간절하게 좋아했더니 기회가 찾아왔다. 2019년, 나는 국제 교류에 대해 막연한 상상만 하던 학부생이었다. 우연한 기회로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코로나 19’라는 상황 속에서 아이슬란드로 인형극 워크숍을 다녀왔다. 나는 그곳에서 인형 제작 방식과 연극 속에서 인형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2023년, 조지아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인형극 작가이자 연출가인 Rezo Gabriadze가 조지아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 공고 파견국에 ‘조지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조지아’=‘인형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지원했다.

파견 전까지 조연출, 오퍼레이터 등 극장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파견 첫 날 극장으로의 출근이 낯설지 않았다. 연극제 사무국 사무실이 있는 ‘MARJANISHVILI’ 드라마 극장은 트빌리시에 위치한 국립극장으로써 오래된 양식의 극장이었다. 사무실에는 총 8명의 팀원이 기술팀과 기획팀으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었다. 연극제 관련 일정은 9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6월에는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업무를 맡아서 했다. 조지아는 극장이 단원을 가지고 극단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극장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게 흥미롭게 느껴졌다. 내가 속한 극장은 드라마 극장으로 대극장에서는 주로 고전극 위주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소극장은 인형극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는 사무국의 배려로 매주 공연을 볼 수 있었고, 공연에 푹 빠져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무국의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웠다. 연출가, 배우, 의상디자이너 등등. 연극 제작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처음에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만남과 대화의 시간 덕분에 조지아 문화나, 연극 제작 방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트빌리시 국제연극제
(영문) Tbilisi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소재지

트빌리시 Tbilisi,
Georgia

설립연도

2009

홈페이지 <https://tbilisiinternational.com/en/performances>

파견자 소개

이하영 mm4311@naver.com

학부에서 연극 연출을 전공했다. 국립극단 아동청소년극 연구소, 극공작소 마방진에 속해서 경험과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축제를 통한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NEXT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조지아 국제 연극제 사무국에서 근무했다. 한국과 조지아의 공동 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한다.

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트빌리시 시청 주도 하에 열린 트빌리시 국제 연극제는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14주년을 맞이했다. 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조지아 내에 있는 공연 팀들이 참가하는 조지아 쇼케이스, 다른 하나로는 해외 공연 팀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국제 프로그램이 있다. 조지아 쇼케이스에는 54개의 공연 팀이 참가했고 국제 프로그램에는 5개의 공연 팀이 참가했다. 사무국에서는 새로운 극장의 개관식과 조지아 쇼케이스 개막식을 동시에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을 바쁘게 보냈다. 하루는 코카콜라 공장을 개조한 새로운 극장에 출근해서 페인트칠하는 작업을 하고 객석에 놓을 쿠션을 깔았다. 하루는 조지아 쇼케이스 후원사와 후원 물품 리스트를 확정 짓고 관객에게 배포할 물품들을 포장했다. 연극제 준비 기간에 팀원들은 업무의 경계를 두지 않고, 서로의 어시스턴트가 되어서 일했다. 나는 덕분에 연극제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극장 관리나 기술적인 업무까지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조지아 쇼케이스 기간 동안 현장 스태프로서 자원봉사자들의 관리와 게스트들의 이동 안내를 도왔다. 극장과 극장 사이의 이동 시간과 동선을 효율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했다. 극장에 도착해서는 게스트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6일 동안 13개의 공연을 볼 수 있었다. 공연을 보고 공통적으로 느꼈던 키워드는 ‘억압’이었다. 인물들은 자신이 억압되어 있음을 표현했다. 사회적 억압, 젠더적인 억압 등등, 그 억압을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공연을 보며 조지아 내에 이슈와 조지아 관객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었다. 나는 현장 스태프인 동시에 게스트로써도 워크숍이나 국제 교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도 참석했다. 기획자부터 저



2 조지아 쇼케이스 개막식 행사 사진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이하영

트빌리시에서 보낸
5개월은 사무국 팀원으로
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단순히 공연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지아 내에 공연 문화나,
조지아 사람들의 소통 방식
도 배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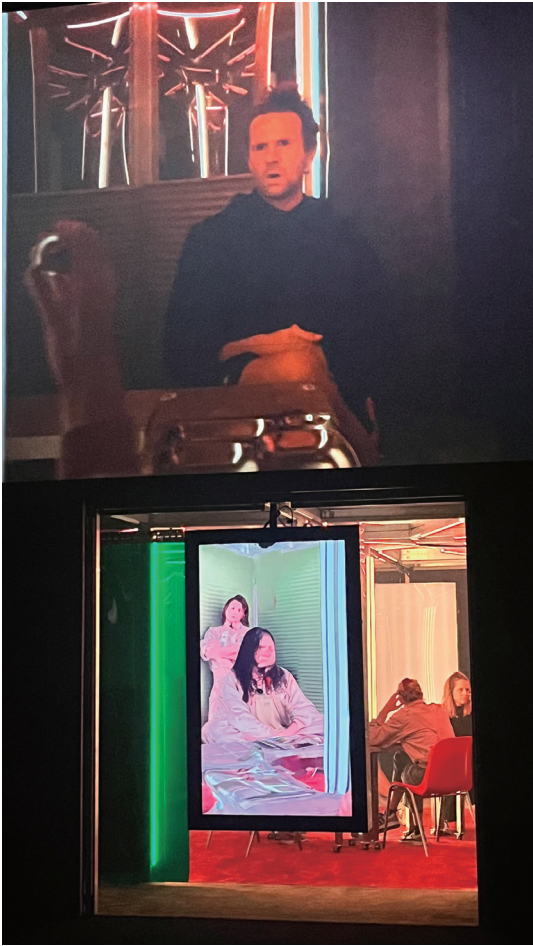
널리스트, 무대 디자이너까지 실제 연극 현장에 있는 게스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었다.

국제 프로그램은 6일간 진행되었던 조지아 쇼케이스와 다르게 한 주씩 한 개의 공연을 올리는 일정이었다. 조지아 쇼케이스는 기술적인 작업을 공연 팀이 극장과 조율해서 진행했지만, 국제 프로그램은 사무국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도왔다. 나는 기술 어시스턴트로서 사전 테크니컬 라이더 조율 업무부터 참여했다. 공연팀이 현지 극장에 사전 답사를 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극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했다. 공연팀의 테크니컬 라이더를 받고, 그에 알맞은 극장을 선택하는 것도 기술팀의 업무 중 하나였다. 폴란드팀은 대형 스크린을 사용해서 큰 반입구가 있는 극장인 Silk Factory를 선택했다. 셋업부터 리허설, 공연 당일까지 극장에 상주하며 공연 팀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다.

트빌리시에서 보낸 5개월은 사무국 팀원으로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단순히 공연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지아 내에 공연 문화나, 조지아 사람들의 소통 방식도 배울 수 있었다. 또래인 조지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며 즐겁게 대화했던 시간도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를 겪으며 앞으로 내가 연극 현장에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의심하던 때가 있었다. 거리두기로 비어있는 객석들을 보며 아쉬웠고, 거리두기가 끝나고도 채워지지 못한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그리워했었다. 나는 트빌리시에서 공연을 보며, 연극을 향한 관객들의 강한 지지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연극은 삶의 작은 일부 중 하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습을 전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확신을 준 트빌리시 국제 연극제 모든 공연 팀들과 사무국 팀원들 그리고 관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더불어 NEXT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3 국제 프로그램 공연 실황 사진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이하영



4 국제 프로그램 공연 실황 사진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이하영

큐브-스튜디오

최유진 · 큐브-스튜디오 (Cube-Studio)



1 큐브-스튜디오 공연장 정면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최유진

큐브-스튜디오(Cube-Studio)와는 기관의 연출이자 감독인 피에르 므니에(Pierre Meunier)의 연출로 2013년에 진행된 작가 알프레드 자리(AlfredJarry)의 작품-공연에 배우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인연을 쌓아왔으며, 2018년에는 본인이 프랑스에서 연출한 공연 위대한 평화 <Grande Paix>의 제작을 해당 기관에서 진행한 바 있다. 연이어 정식 작품 제작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친밀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협력 기관과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작업이 공유되고 있다. 이는 작품 완성 이후 작품의 각 지역 순회공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큐브-스튜디오(Cube-Studio)라는 한 기관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그와 연대하는 각 기관 및 단체,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넓혀가는 것이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인 국제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장 실제적이

고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큐브-스튜디오(Cube-Studio)에서는 극장에 상주하는 단체 라벨므니에르(LA BELLE MEUNIERE)의 자체기획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한편, 외부의 예술가와 단체들을 초청하여 자유롭게 레지던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큐브-스튜디오(Cube-studio)는 기관의 주도하에 공연이 일정한 형태로 되도록 많은사람들에게 소비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공연 제작 현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연의 비-상업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도심 곳곳의 비공연장과 대안공간(Alternative Space)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의 시-공간 확장을 위한 실험과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의 연대를 목적으로 한다.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숲으로 둘러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큐브-스튜디오
(영문) Cube-Studio

소재지
에히송 Herisson,
France

설립연도
1989

홈페이지 <https://lecube.labellemeuniere.fr>

파견자 소개

최유진 sprklextra@naver.com

- 전 (재)국립극단 프로듀서 (2020)
- 외교부, 문체부 주관 유럽한인 100주년 프랑스 파리 코리아 페스티벌 공연 프로그램 기획, 공간연출 (2019)
- 전 프랑스젊은국립극단(Jeune Theatre National)소속 아티스트 (2016-2018)
- 프랑스 극단 반향자들 (La Recidive) 창단 멤버 (2011)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고등연극원 (국립고등전문연기자학위 DNSPC) (2010-2013)

싸인 지리적 특성은 참여한 예술가들이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마을 주민들과의, 기관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의 예술가들과의 관계는 고립되지 않고 피드백을 얻어가며 작품 제작에 필요한 소품 및 장치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이미 완성된 자재나 생산되어 있는 원료의 무대 소품이 아닌 나무-흙-물-돌 등의 자연 오브제를 무대에서 실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품과 세트 반입이 쉽고 자유로운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참가자 본인은 한국 문화예술 지방분권화의 모델 구축을 위한 큐브-스튜디오(Cube-Studio) 레지던시의 국내 적용을 주제로 리서치를 진행하는 한편, 2024년 큐브-스튜디오(Cube-Studio) 레지던시 진출을 위한 공모사업 및 프로그램 구성 등 제반 사항 준비 작업에 참여하였다. '환경과 예술', '다문화와 공존', '디지털 아트와 혁신'을 주제로 2024년 레지던스 오픈콜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자격, 지원 내용, 사업 기간 등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중에 있다. 큐브-스튜디오(Cube-Studio)는 2024년 9월까지 공연장의 리모델링



2 큐브-스튜디오 공연장 내부

★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최유진

NEXT 사업 참여를
통해 이해하게 된 것은,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가 집단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해당 기관/단체
가 추구하는 예술적,
대중적, 실리적 가치와
부합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본문 내용 중 발췌)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2024-2025년 시즌부터 레지던시 운영을 재개
하며 내년 상반기에 오픈콜 (open-call)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NEXT 사업 참여를 통해서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오랜 기간 함께 하며
이해하게 된 것은, 민간차원에서 해외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의 지속
적인 교류를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
가 집단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해당 기관/단체가 추구하는 예술적, 대
중적, 실리적 가치와 부합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모
든 교류는 대형 극장이나, 축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의 예술가들, 단체들과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예술적 그리고 생활 속
가치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큐브-스튜디오
(Cube-Studio)의 레지던시에 참여한 예술가/단체들의 작업은 협력 기
관 라도극단이 상주하는 라 폰드리(LA FONDERIE)를 비롯하여, 그르
노블 극장(Theatre de Grenoble), 라코메디드발랑스(La Comedie de
Valence)등으로 협력 기관과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작업이 공
유되고 있다.



3 큐브-스튜디오 공연장 내부-객석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최유진



4 큐브-스튜디오 사무실 별관 앞
*출처: 2023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최유진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The Royal Ontario Museum

최혜윤 ·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The Royal Ontario Museum)



1 ROM First Floor Korean Art Activities 진행 사진
*출처: 2023 NEXT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최혜윤

나는 올해 KOFICE를 통해 롬에 파견되기에 앞서, 2021년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이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ROM: 이하 롬)의 캐나다 내 첫 한국 미술 큐레이터십과 소장품 연구 보존/ 활동을 5년간 지원하는 협약 체결에 참여하였다. (당시 나는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의 대외협력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여 이 기념비적인 협약을 보조하고 협약식을 위해 박물관을 방문하여 뮤지엄 CEO 및 Chief Curator와 미팅을 가졌다.) 당시 롬의 위엄과 방대한 컬렉션에 감명받아 꼭 한번 일해보고 싶었는데, KOFICE의

NEXT 사업 덕분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

협업된 총 5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나는 롬의 한국미술 큐레이터이신 권성연 선생님을 보조하며 주로 한국관 전시 및 컬렉션 관련 보조 업무를 진행했다. 먼저 대표적인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강익중 작가의 관객 참여형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롬의 교육 부서와 협력하여 한국관 내에 부스를 마련, 한국관을 찾는 어린이들과 함께 그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표기하는 법을 익히고, 한글로 써서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영문) The Royal Ontario Museum

홈페이지 <https://www.rom.on.ca/en>

소재지

토론토 Toronto,
Canada

설립연도

1912

파견자 소개

최혜윤 hyeyounchoi@gmail.com

한국 근현대 미술의 연구자이자 큐레이터인 최혜윤은 한국, 캐나다, 미국, 프랑스 문화기관 및 미술관에서 다양한 전시 기획 및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적인 전시 및 연구를 통해 그간 한국 및 아시아 미술을 조명해온 그는 현재까지 12개 이상의 전시에 참여하였고, 뉴욕 시티 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에서 그의 아시아 근현대미술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의 전시와 연구 활동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유럽연합,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등 전세계 총 8개 기관에서 지원받은 바 있다.



2 ROM First Floor Korean Art Activities 결과물 사진
*출처: 2023 NEXT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최혜윤

크레파스와 색연필을 이용하여 꾸미도록 하였다. 또한, 롬이 위치한 온타리오주 내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모이는 학회에 찾아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캐나다 내 다양한 이들의 한글 이름을 수집하였다. 내년에는 이 한글 이름 카드들을 모아 강익중 작가님의 신작을 제작하여 롬 전시장에 배치하고, 그 옆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박물관을 찾는 이들이 한국 미술을 더욱 쉽게 접하고, 체험하고, 또 이를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ROM First Floor Korean Art Activities 진행 사진
*출처: 2023 NEXT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최혜윤

전시 외에 롬의 소장품 관련 업무 또한 진행하였다. 롬에 소장된 한국 미술품은 대부분 연구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필요시 보존 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권성연 선생님을 보조하기 위해 롬의 방대한 한국미술 컬렉션에 관해 쓰인 논문과 문헌을 리서치 하였다. 또한, 한국 소장품 확장을 위해 기부자와 미팅하고, 실제로 많은 한국 현대미술품을 기증해 주신 기증자와 만나 교류하고, 이후 작품을 미술관으로 인도하였다.

캐나다 내 첫
한국 미술 큐레이터를
보조하며 캐나다에 한국
미술을 알리고
캐나다 내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 사람들에게 한국
미술의 이해와 관심을
도모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외에도 한국 및 현지 캐나다 기관과 지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10월 초에 한국에서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토론토를 방문하여 토론토에 위치한 갤러리 및 미술관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으며, 특별히 룸에서 한국 작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룸의 각 부서 큐레이터뿐 아니라 토론토 내 한국 및 아시아 미술 학자 및 관련자들이 한데 모여 한국미술에 대해 토론하는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비록 5개월 반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캐나다의 유수 기관에 소속되어 캐나다 내 첫 한국 미술 큐레이터를 보조하며 캐나다에 한국미술을 알리고 캐나다 내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 사람들에게 한국 미술의 이해와 관심을 도모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4 한국미술 디지털화 작업
*출처: 2023 NEXT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자 최혜윤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지원

NEXT

한국-남아공 세계여성의 날 기념 공연 & 전시 “여신의 언어” 프로젝트 뒷 이야기

김주원 · 2017년 독일 한국문화원 파견



1 리허설
*출처: 2023 NEXT 사업참가자 김주원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배경 프로젝트 소개 및 추진과정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열린, 한국의 여성작가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자리하고 있는 NGO 저스티스 데스크 아프리카와 함께 협력한 프로젝트 “여신의 언어”는 수 많은 우연과 필연으로 이뤄진 프로젝트이다. 보통은 협업 기관과 시의적절한 아젠다를 택한 후 참여 작가와 작품을 결정하는 순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비슷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온 작가의 참여를 확정지은 후 협력 단체인 저스티스 데스크 아프리카의 상황과 현지의 실정에 맞춰 그들

에게 장/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본 기획자는 2017년 넥스트 사업을 통해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게스트 큐레이터로 근무를 하는 귀환경험을 가졌다. 이 후 베를린에 위치한 에스더 쉬퍼 갤러리에서 아트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며, 2020년 BTS (방탄소년단)이 지원하는 현대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커넥트, BTS’는 현대미술 작가 22명이 방탄소년단의 철학을 현대미술 언어로 구현한 작품을 런던·베를린·부에노스아이레스·뉴욕·서울 5개 도시에서 선보이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토마스 사라세노, 안 베로니카 안센스, 안토니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저스티스 데스크
(영문) JUSTICE DESK

파견유형

기파견인력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지원

소재지

남아공, 케이프타운

설립연도

2013

홈페이지 <https://www.justicedesk.org>

파견자 소개

김주원(조앤킴) joannejrkim@gmail.com

조앤 킴은 이미지, 소리 및 기술 간의 형식적 특성과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립큐레이터로 2024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외교통상부 지원 프로젝트 &달에 사는 토끼”의 예술감독, 큐레이팅 스킴 서울의 공동 운영자를 맡고 있다. 2017년 파리, 2018년 베를린에서 열린 다원예술축제 “년센스뮤직 페스티벌”을 총연출했고, 중국 상하이 K11 문화재단, 프랑스 파리 ‘ASIA NOW - Paris Asian Art Fair’, 베를린 에스더쉬퍼 갤러리에서 디렉터로 재직했다. 2022년 서소문 성지역사 박물관에서 열린 백남준 탄생 90주년 기념 프로젝트 플룩소(Fluxo)를 공동 연출했고, 최근 협업큐레이터로 토탈미술관, 강릉국제예술제(GIAF), 삼청 뮤지엄 한미 등과 협업했다.

곰리 등 잘 알려진 작가들과 함께, 런던 서페타인 갤러리, 베를린 그로피우스 바우 등 각 도시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세계 정상급 가수가 된 그 놀라운 문화현상과 그 현상 이면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 ‘연결’ ‘소통’ 등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이 관객을 맞이했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BTS의 음악과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의 곡에 담긴 철학과 다양한 고전에서 온 레퍼런스(클래식 음악, 칸트, 융, 그리스 신화 등), 특히 국적과 세대를 넘어 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선한 영향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초 국가적인 팬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냐를 바라보는 것도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열린 제3회 BTS 국제학제간학술대회와 함께 진화하는 팬덤에 대해 다뤄보는 포럼(2022 머쉬룸 인사이드 포럼)이 열렸고, 두 행사에 참여를 초대받아 연사로 기획자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역시 연사로 한국을 찾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단체 저스티스 데스크 아프리카의 CEO 제시카 듀허스트는 BTS의 ‘Not Today’ 노래 가사와 UN 연설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획한 음보코도 프로젝트가 젠더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 당하는 남아공 여성들의 회복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또 이 프로젝트의 활동가인 10대 남아공 아이들은 BTS의 메시지인 ‘Love Yourself’ ‘Speak Yourself’를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해 왔는지 전달했다.

젠더 폭력에서 살아남은 소녀들에게 자기 보호·운동 수업을 제공하고, 트라우마 해결에 힘쓰고, 인신매매범을 잡으면서 저스티스 데스크 아프리카는 10여년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이들은 잠비아, 케냐, 남수단, 인도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세계적으로 프



2 한글 워크숍

*출처: 2023 NEXT 사업참가자 김주원

로젝트를 확산시켜 나간다. 제시카 듀허스트는 “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는 정신이 있다.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라는 용어다. BTS는 우분투와 상통하는 공동체 정신을 인식하고 포용하게 했다”며 “BTS가 지퍼준 불씨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림이 있는 그녀의 강연 후 함께 한국을 찾은 10대 활동가들이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공연을 선보였다.

더없이 아름다운 목소리였으나, 전문적인 기획이 다소

아쉬웠는데, 제시카로부터 현지 남아공 한국대사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본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현지에서 이미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그녀들이 해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완성도 있는 공연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을 맞춰보다 8월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맞춰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틀을 잡았다.

저스티스 데스크 아프리카 내 활동가 및 청소년 30~40명 정도로 이뤄진 코러스단이 있기에, BTS의 곡 중 몇 곡을 골라 이들의 목소리에 맞춰 편곡을 하고, 현지에서 섭외한 4중주 콰르텟 그룹이 함께 연주하는 걸로 여성의 날 행사 공연 프로그램을 짰다. 또 함께 방문하는 한국 여성 작가들과 함께 <진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서 한국어 진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저스티스 데스크 아프리카의 건물 내 전시장에서 전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10일 동안 진행할 워크숍과 현장의 모습들을 촬영, 편집 해 공연 때 영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진 프로젝트를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들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황수경 작가와 영상 촬영 및 편집, 코디네이터로 참여할 장윤영 작가의 참여를 먼저 확정했고, 여인영 작가, 박솔기 작가, 바람(팀) 등 께서 진을 만들어 기부해 주셨다.

프로젝트 제목인 “여신의 언어”는 고고학자 마리아 김부타스의 저서로부터 빌려왔다. 그녀에 의하면 기원전 7000년경부터 기원전 3500년경 까지 존재한 여신 전통 문명은 다양한 상징을 통해 올드 유럽에서 인도-아시아로 퍼져 나갔는데, 이는 인류 초창기 모권 중심의 사회에 대한 발견을 뜻한다. 또한 인류가 항상 전쟁을 하며 살아왔다는 명제는 지난 5000년의 짧은 인류사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김부타스는 유물을 관찰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감정이입을 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유추하고 분석해 냈는데, 본 프로젝트 또한 각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조화의 평화의 언어, 이 시대의 “여신의 언어”란 무엇일지에 대한 탐구를 해보고자 했다.

주요 성과 및 현지 반응 향후 활동계획 등 자유롭게 기술

2022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남아공간의 문화교류가 현지에서 활발해졌고, 현지에서도 심도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콘텐츠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 장소로 택한 야외 공연장 “V&A Waterfront Theater”는 월드컵 경기장과 해변 관광지를 끼고 있는 유동인구가 높은 곳으로, 숙소 및 저스티스 데스크 아프리카 사무실에서도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곳이라 행사 준비에 여러모로 용이했다. 기획자와 황수경, 장윤영 작가가 함께 한국에서 케이프타운으로 향했고, 동시에 BTS 곡 안에 있는 클래식 음악의 요소와 그들의 여정을 담아 새로운 곡을 작곡한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헨리 청도 팀에 합류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첫날부터 벌어졌다. 마피아와 같은 조직인 현지 불법택시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파업을 시작했기에, 모든 대중교통이 마비가 되었다. 슈퍼마켓에는 재고가 떨어지고, 레스토랑에는 인력이 부족해 한정된 메뉴만 가능하거나 문을 닫는 상황이 일주일 간 지속 되었다. 불법 파업은 경찰과 시민 3명이 사망하는 충격전으로 번졌고, 관공서와 학교 역시 임시로 문을 닫았다. 다행히 저스티스 데스크 아프리카 팀과 기획팀이 묵고 있는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지만, 10대~20대 학생들로 이뤄진 코러스 팀이 시내 외곽에 있는 집과 워크숍 장소를 오가며 공연과 전시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공연 역시 언제 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상의 끝에 한국어 워크숍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핸드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변경했고, 원래는 주 중인 수요일이었던 공연 날짜를 출국 하루 전인 토요일, 최대한 뒤 쪽으로 연기를 시켰다. 아무 것도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스티스 데스크 아프리카 팀은 유연하게 프로젝트를 변경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학교를 가지 못해 상당히 무료했던 학생들은 열성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했고, 기획팀은 온라인을 통한 예술 워크숍 톨들을 찾아 새로이 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모두가 핸드폰이 있거나 인터넷이 통하는 지역에 사는 게 아닌 지라, 컨택포인트를 맡은 친구가 그룹 별로 결과물을 모아 팀에게 전달 해줬다. 공연이 열리는 날 야외에서 워크숍 결과물을 전시하는 걸로 전시 계획을 변경했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어 워크숍을 통해 수집된 각 소녀/소년들의 드로잉과 글을 재료로 삼아 두 한국 작가가 영상을 제작했다. 코러스 팀이 가장 즐겨 부르는 현지어 곡의 내용을 드로잉으로 그려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포함 (장윤영 작가 제작), 총 4개의 영상을 제작했다. 모든 영상은



3 야외 포스터
★출처: 2023 NEXT 사업참가자 김주원

무대 뒤 스크린에서 음악에 맞춰 상영되었다.

다행히 정부와의 조율로, 택시 조합의 파업이 극적으로 임시 중단되었고, 공연 날인 토요일부터 모든 것이 정상화 된다는 뉴스가 나왔다. 공연이 진행되는 게 결정된 만큼, 최소 3~4번의 리허설이 급히 필요했다. 차량을 준비해 마을마다 가능한 인원을 직접 픽업, 1박 2일간 합숙을 하며 공연을 준비했다. 저스티스 데스크 아프리카의 건물 안 가장 큰 방이 합숙소가 되었고, 부엌에서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리허설이 끝난 후 저녁에는 다함께 모여 영화를 보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 당일, 하늘은 맑게 개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반구로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다. 8월 겨울은 꽤칭한 날씨였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정상화 된 거리로 기쁘게 쏟아져 나왔다. 공연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 되었고, 추산 250여 명의 관객이 자리를 메웠다. 준비한 한식 도시락 100개 역시 인기가 많았다. 계속해서 공연 날짜가 바뀌는 바람에 흥보에 애를 먹었지만,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오지 못한 이들도 원격으로 관람을 할 수 있게 온라인 중계를 준비했다.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프리카 아이들도 공연을 보러 먼 길을 와주었고, 공연 후 영상을 SNS



4 공연 전후
★출처: 2023 NEXT 사업참가자 김주원

에 올라 다른 아이들과 공유를 해주었다. 공연 끝에는 준비한 현지어 앵글 곡에 맞춰 모두가 기립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한국어로 된 가사와 노래 임에도 국적과 세대를 넘어 현지에서 폭넓은 호응을 이끌어내는 모습에 현지 음악 페스티벌 관계자, 음대 관계자 등 역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2024년 가을 혹은 2025년 봄 현지 초청으로 한 번 더 공연이 진행되는 것을 상의 중이며, 저스티스 데스크 아프리카 코러스 팀이 현지의 음대에 방문, 간헐적으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도 토론 중에 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 참여자가 10대~20대 였기에, 한국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매우 관심이 높았고, 한국의 악기가 함께 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추후 프로젝트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생애 처음 방문 한 아프리카에서 생각지 못했던 여러 상황에 놀라기도 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할 만큼 악화된 치안에 걱정도 많이 했으나, 결국 모두를 하나로 묶은 것은 처음의 바람대로, 음악이었다. 메시지만 주고 받으며 가슴을 졸이다 드디어 처음 코러스 팀을 만난 순간, 푹팍 푹팍 뛰며 열싸 안았던 순간이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듯 하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머스쿨 : 한국, 네덜란드 독립기획자를 위한 배움의 학교

목홍균 · 2018년 네덜란드 드아펠 파견



1 작가와의 대화
*출처: 2023 NEXT 사업참가자 목홍균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배경

2018년 가을 네덜란드 드아펠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20년 전시 <사적인 노래> (두산 갤러리), 2021년 리서치 사업 <프로젝트 더 그레이트 뮤지엄>(온라인)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전자는 펠로우십에서의 연구 주제를 컴퓨팅 프로그램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한 것이고, 후자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일본 등 세계 각지의 독립기획자들과 미술관(미술관에서 물리적 조건을 건어낸 상태)을 주제로 풀어간 협업이었다. 전자와 후자 모두 대부분의

사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협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접근했던 방식이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항공, 숙박 등의 비용을 절감하여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도를 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일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시도해 보고 싶었고, 좀 더 많은 사람과의 접점을 만들고자 협업의 중심에 “배움”을 두고 고민하게 되었다. <서머스쿨>은 독립기획자 또는 연구자, 작가들이 어떻게 무엇을 함께 배워갈 수 있는지 시도한 작업이었다.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 드아펠 암스테르담
(영문) De Appel Amsterdam

홈페이지 www.deappel.nl

파견유형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여

소재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설립연도

1985

파견자 소개

목홍균 frenzel@naver.com

독립기획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협력프로그램> 아르고 총괄기획자로 활동했다. 국제교류프로젝트 <Beautiful Soup>(드아펠 암스테르담, 2023), 큐레토리얼 리서치 프로젝트 <Project The Great Museum>(2021,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전시 <The City of Homeless>(아르코미술관, 2016), <Privated Song I>(두산갤러리, 2020)을 기획했다. 암스테르담 드아펠아트센터, 도쿄원더사이트, 런던V&A의 연구자 및 펠로우십 과정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소개 및 추진과정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출판물에 주목하게 되었다. <학교 없는 사회>, <미술 노동자> 그리고 <코무니타스>로 각각 1971년, 2009년, 1998년에 쓰였다. <학교 없는 사회>는 2009년에 출판(생각의 나무, 박홍규 번역)되었는데 올해 새로운 번역판(사월의 책, 안희곤 번역)이 나왔다. <미술 노동자>는 2021년도에 첫 번역본(열화당, 신현진 번역)이 나왔다. 그리고 <코무니타스>(크리티카, 번역 윤병언) 역시 첫 번역본이 2022년도에 나왔다.

책 세 권의 번역본이 최근 출판 또는 재출판된 것이 예상되지 않게 보였다. 이를 시작점 삼아 배움에 대해, 노동에 대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022년부터 1년간 준비해 온 아르고 국제교류프로젝트 <뷰티풀 수프>(드아펠)를 진행하며 드아펠의 새 디렉터인 라라 칼디(Lara Khaldi)와 배움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2024년 본격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준비 작업으로서 워크숍을 시도해 보았다. 워크숍의 장소로서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는 것,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을 접해볼 것 등의 고려 사항이 있었



2 세미나

*출처: 2023 NEXT 사업참가자 목홍균

2018년 펠로우쉽 이후 기획자가 해외의 미술기관 및 제도 등을 경험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에 해외 기획자들을 초대함으로써 그들에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고, 미술계와의 접점을 만들어가 갈 수 있었던 점도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 광주 리서치 여행도 다녀오고,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본 결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을 워크숍 장소로 정하게 되었다. 워크숍 기획에 참여한 리자 니휴이스 (Liza Nijhuis) 아이리스 페러 (Iris Angelan Ferrer)와 함께 꿀잠을 무대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다.

주요 성과 및 현지 반응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독특한 장소를 경험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비정규노동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는 곳으로 운영비 전체를 개인의 후원으로 조달하는 곳이었다. 배움, 노동,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네덜란드에서 온 기획자들에게 노동자와 연대하는 비영리기관의 역할과 가치 등을 알리고 경험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 이 공간과 연대하는 연구자, 작가들과의 접점을 마련하고 향후 해외에서의 활동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018년 펠로우쉽 이후 기획자가 해외의 미술 기관 및 제도 등을 경험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에 해외 기획자들을 초대함으로써 그들에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고, 미술계와의 접점을 만들어가 갈 수 있었던 점도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향후 활동계획

또한 2024년 10월경 드아펠 디렉터 라라 칼디(Lara Khaldi)의 방한이 확정되었고, 관련해서 한국에서의 협력사업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부터 매월 1회 작가, 기획자,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팟캐스트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3 작품상영회
*출처 : 2023 NEXT 사업참가자 목홍균



4 워크숍 참가자들
*출처 : 2023 NEXT 사업참가자 목홍균

음식은 주석이 많은 문장, 우리 몸에 흐르는 이야기 《바다를 건너는 부엌 : 식구》

조혜수 · 2020년 부산비엔날레 파견



1 전시 전경
*출처: 2023 NEXT 사업참가자 조혜수

하카타항에서 부산항까지는 여객선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일본인들에게도 부산과 제주도는 인기 있는 관광지다. 규슈 지방과 한반도의 교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음식’에 있어서도 서로 전파되어 유사성을 가진 음식도 존재하며, 이들은 전쟁과 이주 등의 역사를 거쳐 지금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있다. 《바다를 건너는 부엌 : 식구》는 각각 부산과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작가를 후쿠오카에 초청해 음식과 관련한 신작을 제작하고 한 달간의 전시로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 장소가 된 오버그라운드(OVERGROUND)는 ‘일본의 부엌’이라 불리는 후쿠오카의 하카타에 자리 잡고 있다. 로컬 시장에 둘러싸인 대형 슈퍼마

켓을 개조하여 2022년에 개장한 신생 공간이다. 감사하게도 국제적 시각에서 젊은 에너지를 보여주는 외부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큐레이터 초대전’에 초청해 주셔서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번 전시를 꾸리게 되었다. 전시장에 부엌이 달려 있다는 점이 ‘맛’에 관련된 작품 제작이나 퍼포먼스의 장소로 특히 적합하였다.

후쿠오카가 속한 규슈 지역은 일본인이 좋아하는 향토 음식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07년 일본 농림수산성은 총 1,644종의 음식 가운데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100개를 선정하여 ‘향토 요리 100선’을 발표했다. 심사와는 별도로 인터넷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는데 1위부터 10위 가운

파견기관

기관명
(국문)오버그라운드
(영문)OVERGROUND

소재지
일본, 후쿠오카

설립연도
2022

홈페이지 <https://overground.asia>

파견자 소개

조혜수 cho.hyesu.0@gmail.com

1993년 출생.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자랐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도쿄예술대학에서 큐레이션을 공부했다. 2020 부산비엔날레 코디네이터, 2022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등을 지냈다. 주요 전시 기획으로 《이주임박》(안산 올림픽타운), 《바다를 건너는 부엌 : 식구》(OVERGROUND, 후쿠오카) 등이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미술의 경계를 탐구하고, 실천적 대화로서의 큐레이션에 대해 고민한다. 한일을 거점으로 활동. chohyesu.com

데 규슈 음식이 6개나 선정됐다. 그만큼 이곳은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의 본고장으로, 우동, 소바, 나베 등의 깊은 역사가 있다. ‘후쿠오카’하면 ‘맛’이라는 이유로 어찌면 뻔한,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근원적 욕구와 생활, 사회, 경제의 정체성과 관계하는 이 주제 ‘음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음식은 주석이 붙은 문장들과 같다’는 발상에서 전시를 구체화했다. ‘음식은 우리 인간의 몸에 녹아 있는 이야기’라는 문장을 중심으로, 현지 큐레이터들과 음식의 역사를 리서치하며 한국과의 교류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규슈 지역은 쓰시마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대륙문화가 가장 빨리 들어온 선진 지

역이었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하카타 요리의 뿌리라 불리는 모츠나베는 조선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기, 후쿠오카 인근 탄광촌으로 징용된 조선인들이 소나 돼지의 부산물로 끓여 먹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일본의 대표적 나베요리가 되었다. 그 외에도 부산에서 건너온 명란젓이 현재는 후쿠오카의 대표 특산물이 되어 관광객들이 줄 서 있다.

제목인 《바다를 건너는 부엌 : 식구》는 일본어로 海を渡るブोक : シック (우미오 와타루 부오쿠 : 식구)로, 한국어의 부엌과 식구를 발음 그대로 표기하였다. 우리말 ‘부엌(BUEOK)’은 ‘불’, ‘가마솥’의 발음이 변화하



2 김도희 〈상여놀이 축원〉(2023) 퍼포먼스 현장. 작품을 상여로 사용하여 상여놀이를 진행하였다.
*출처: 2023 NEXT 사업참가자 조혜수

였으며, '식구(SIKGU/食口)'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한 지붕 아래 지내며 함께 식사하는 사이를 말한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내게, 먹을 식(食)에 입 구(口)라는 한자어가 새삼 새로웠다. 출신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함께 식사함으로써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포용력을 담고 있는 듣기만 해도 밥을 얻어먹은 것처럼 배가 부른 말이다.

이러한 타이틀과 주제 안에서, 이유진 작가와 김도희 작가의 2인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흔히 2인전은 사이좋은 두 작가가 직접 기획하는 게 아니면 자주 보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하나의 주제를 공평한 존재감으로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두 작가는 그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작업을 각각 선보이며 함께 식구가 되어주었다.

이유진 작가의 〈그림 대화: 밥도둑 이야기〉(2023)는 18점의 테이블 매트로서, 참가자와 1:1로 대화하며 그려간 작품이다. 작가는 '밥도둑'을 주제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림을 그렸다. 제주에 살며 알고 지낸 이주민 친구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새롭게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음식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레시피가 이동해 온 경로를 탐구하고 이를 만지고 (모든 작품), 듣고 (사운드 대화), 사용하고 (테이블 매트, 테이블보), 가져갈 수 있는 (레시피 카드) 작품으로 선보였다.



3 한중일로 구성된 큐레이터팀. (왼쪽부터) 진 슈, 조혜수, 다나카 나오키
*출처: 2023 NEXT 사업참가자 조혜수

과정과 관계를 중시하는 예술을 실천하는 시각 예술가이자 협업자인 이유진은 비수도권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에 대해 고민하며 '관계 미학(Relational Aesthetics)'의 언어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2018년 제주도로 이주하여 오래된 농가를 구입하고 주거 겸 창작 스튜디오 '미술관 옆집 Next Door to the Museum'을 마련해 독특한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집도 작가의 작품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이 본 전시에 무척 들어맞았다.

또한 제작된 작품은 특별 시식 메뉴와 함께 '식구 되기'의 매개가 되며 퍼포먼스 〈인생은 (초콜릿 상자 혹은) 벤또라고〉(2023)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퍼포먼스는 한일 공통의 식재료와 제주와 후쿠오카에서 자라거나 얻은 재료를 사용하여 작가가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총 2회 차, 각각 1시간반 가량을 소요하여 진행하였으며, 교류의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어로 진행, 일본어 동시통역으로 발표되었다.

김도희 작가는 한국의 '상여'와 후쿠오카의 '야타이(포장마차)'에서 착안하여 한일 양국의 생사(生死)가 만나는 설치 작품 〈김명태 승천기: 상여 야타이 놀이〉(2023)를 제작했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포장마차가 일본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단, 후쿠오카만 빼놓고 말이다. 후쿠오카의 포장마차 문화는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하면서 발전했다. GHQ(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단속으로 1955년에는 노점상 전면 폐지가 선언되었으나 연합회가 협상을 노력하여 포장마차 폐지를 면하고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즉, 포장마차는 죽음을 딛고 생겨난 생의 기록이자, 후쿠오카 사람들이 지켜낸 문화이다. 인간의 유기체적 특성과 원초적 물질 감각의 관계를 바탕으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생명 감각을 확장하는 작업해온 김도희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생사를 만나게 했다. 사람이 옮기는 형태가 달기도 했지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와 에너지의 순환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한국의 전통 장례식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삶'으로 이어지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상여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보관하고,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로, 출신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장 화려한 종이꽃으로 장식된 상여를 타고 묘지로 향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고, 죽은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고, 장례식 기간 함께 음식을 준비해 모르는 사람이 와도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 문화이다. 김도희 작가는, 후쿠오카의 포장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된 일본의 미학적 조형미와 달리 가설의 흔적과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사적인 공간을 중시하는 일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과 밀착해 앉아 있는 것에서 남다른 활기를 느꼈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 장례 문화와 후쿠오카 포장마차의 활기를 이미지적으로 중첩했다. 또한, 일본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도(影島)의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활용하며 한일의 공동체 문화, 생명의 수평적 순환을 드러냈다. 이 작품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인 방지원과 함께 실제로 전시장에서 〈상여놀이 축원〉(2023)를 선보이며 상여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전시 관람객들은 예술 작품으로 타문화와의 교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본 전시는 후쿠오카 커뮤니티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제작, 준비, 진행 모든 과정에 후쿠오카 현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게 기능하였다. 또한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한 우리말 전시 해설, 후쿠오카 사물놀이 단체로부터의 퍼포먼스 악기 지원 등 재일한국인 커뮤니티, 일본 내 한국어 사용자와

도 밀접하게 관계하였다. 그 결과 현지 협력기관에서 개최해 온 타 전시의 평균 방문객 2배에 가까운 방문수를 확보하였으며, 재방문 빈도가 높고 평균적으로 전시에 머무는 시간 또한 5배 이상 길다는 공식 피드백을 받았다. 후쿠오카가 동아시아권의 교류에 유용한 지역임에 따라 본 프로젝트는 또다른 교류로 이어질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 프로젝트로 인식되었다.

본 기획은 음식 문화를 통해 사회적 연결에 주목하고 예술을 통한 교류로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도, 타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평화적 작업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진행되었다. 작업을 제작하고 전시를 선보이는 동안에도 무심코 '다른 것'들을 많이 지나쳤을 것이다. 공동체, 다문화, 나눔... '그런 것', 이제는 모두가 쉽게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낯선 것을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우리 자신도 실제로는 모른다. 발 딛고 있는 곳을 바탕으로 자신을 설명해야 하고, 사실은 그것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 것일 때,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타인의 체취를 함께 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 작업에 함께 했다.

지역의 경계를 탐구하여 그 이야기를 융합함으로써 출신과 생의 경험으로부터 생기는 차별과 간극을 와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장기적으로도 문화예술 교류의 장을 균형감 있게 구체화하는 연대의 가능성을 잃어내 가고 싶다.



4 이유진 〈인생은 (초콜릿 상자 혹은) 벤또라고〉(2023) 퍼포먼스 현장
*출처: 2023 NEXT 사업참가자 조혜수

202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결과자료집
NEXT STORY

발행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발행인	정길화(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발행일	2024년 2월
기획총괄	교류기획부 교류기반팀
디자인	emizist design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039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동 203호
Tel 02-3152-1759
Fax 02-3153-1787
www.kofice.or.kr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